

나들이하기 좋은 11월, 보행자 사망사고 가장 많다

광주·전남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 268명 중 11월 14.6% 차지 축제·행사 등 야외 활동 잦아 사고 집중...교통약자 등 주의해야

광주·전남에서 11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고 사망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11월 보행자의 날을 맞아 지난 2021~2023년 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보행자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11월의 보행자 사망자가 14.6%로, 다른 월(月)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2021년 2451건, 2022년 2565건, 2023년 2514건 등 총

7530건의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11월이 739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 가장 비율이 높았다. 10월 725건(9.6%), 9월 705건(9.4%), 5월 693건(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행자 사상자 수도 사고 건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상자 수는 2021년 2579명, 2022년 2678명, 2023년 2680명 등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총 268명 발생했으며, 11월 39명(14.6%), 10월 28명(10.4%), 1월 27명(10.1%), 9월 26명(9.7%) 순이었다. 부상자 또한

총 7669명 발생했으며, 10월 737명(9.6%), 11월 735명(9.6%), 9월 704명(9.2%), 5월 700명(9.1%) 순으로 많았다. 11월 발생한 사고 중에서는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 중일때 발생한 사고가 32.1%(2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차도를 따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14.1%(104건), 보행로 통행 중 사고는 4.9%(36건),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사고는 4.3%(32건)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선선하고 축제, 행사,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11월 전후로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가족 단위 외출이 잦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고 위험도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수진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

육부 교수는 "운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특히 차도 횡단 속도가 느리거나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어린이 같은 경우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켜줘야 하며, 신체·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진 고령자는 스스로 주의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행자가 안 보이는 경우 생김으로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밝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실제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차도 횡단 전 손을 들어 보이는 캠페인을 실시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월 유관기관 합동으

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목포 동부시장에서 한국도로공사, 순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홍보, 교통안전용품(안전지팡이, 물티슈) 제공, 무단횡단 금지 서약 등 활동을 했다.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9월부터 매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문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고령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이므로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연체 기자 yjyou@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은... 11월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캠페인에서 북구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주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무등시장 장보기 편해지겠네...공영주차장 문 연다

115대 수용...14일부터 한달 무료
광주시 남구 대표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 남구는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이 오는 14일 준공됨에 따라 한달간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무등시장 인근 주차 관련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남구는 2022년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했다.

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된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은 지상 2층 3단 구조로 115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차량 진출·출입 편의와 신속한 주차 요금 정산을 위해 무인 정산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용객들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무등시장 방문객의 경우 1시간 무료, 1시간 이후 10분마다 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하루 이용권은

8000원, 월 정기 이용권은 9만원으로 책정됐다. 남구 관계자는 "이제 자가용으로 편하게 무등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무등시장 뿐 아니라 군분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부터 봉선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정율성 공원 조성' 광주 보훈단체 '갈등'

전물군경미망인회 등 2곳 "공원 조성 반대 철회 단체들 사죄해야"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광주지역 보훈단체가 돌로 갈라졌다. 7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광복회) 광주시지부가 지난 6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11월 7일자 광주일보 7면)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2개 보훈단체(전물군경미망인회, 전물군경유족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와 전물군경미망인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광주지역 7개 보훈단체는 즉각 호국 영령에 사죄하고 정율성 공원 조성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7개 보훈단체는 지난해 8월 정율성 공원 조성 반대 성명에 한 차례 참여한 것 외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이들 단체가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집회를 '불법요한 이념갈등과 분열'이라고 한 것은 호국 영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단체로서 인식이 부족한 것이며, 정체성을 망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유연체 기자 yjyou@

장성서 승용차·트랙터 추돌...집간에 있던 60대 아내 숨겨

장성에서 승용차가 부부가 타고 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집간에 타고 있던 60대 아내가 숨졌다. 11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0분께 장성군 삼서면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의 후미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집간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트랙터를 운전하던 A씨의 남편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 부부는 함평에서 트랙터에 니락을 싣고 장성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를 무렵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가을밤 시니어 합창

북구, 오늘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 북구가 가을밤 시니어 합창단의 특별한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을 마련했다.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북구합창단·시니어합창단 특별 기획공연'이 열린다.

하나 된 북구, 하나 된 하모니'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연은 오준혁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3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이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합동 공연을 선보인 뒤 김근형 반주자의 피아노 선율에 맞춰 '인생은 70부터야' 등 북구시니어합창단의 1부 공연이 가을밤을 수놓는다. 입장권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김대인 기자 kdi@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